

# PEOPLE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 전남개발공사 헌혈증 기부...생명나눔 실천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단체헌혈 행사를 통해 기부 받은 '헌혈증 50매'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광주나눔소아암센터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전달한 헌혈증 50매는 지난 2월 공사에서 추진한 '헌혈 동참 캠페인'에 참가한 임직원들과 사육 임주기관 및 주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모았다. 기부된 헌혈증은 항암치료 등으로 인해 수혈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소아암 환아들에게 지원된다.

백혈수 전남개발공사 경영기획실장은 "힘든 치료 과정을 겪고 있는 소아암 환아와 그 가족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 운동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민중미술 대표 신학철과의 만남 내일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시대의 풍타주' 전시와 연계한 작가와의 대화를 14일 오후 3시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세미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작가와의 대화는 신학철 작가(82·사진)를 초청해 그의 삶과 예술세계를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한국 미술의 흐름 속에서 60년에 걸친 화업의 변천 과정을 조망하며, 작가의 시대적 통찰과 당대의 정서를 작품에 녹여낸 과정, 창작자의 고민,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진솔한 삶과 예술 사이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 수 있을 전망이다. 전시를 기획한 흥윤리 학예연구사와 함께 한재섭 문화연구자가 대담자로 참여해 신학철 작가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에서 사전 질문을 받아 선정된 질문을 중심으로 대담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동곡농협 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동곡농협은 최근 동곡농협 대강당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고령층을 대상으로,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최근 유행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과 피해 사례를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대처 방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화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이러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동은 동곡농협 조합장은 "교육을 통해 고령과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사기 범죄 예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앞장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광주비엔날레-서울대미술관 협약...“국제 교류 활성화”

## 12일 현대미술 콘텐츠·작가 네트워크 등 협력 3일간 한·중·일 국제 학술 심포지엄 공동 진행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직무대행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이상갑)가 서울대학교미술관(관장 심상용)과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한·중·일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국제 현대미술 콘텐츠 교류는 물론 광주 및 서울 지역 현대미술 기획자 및 작가 간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재)광주비엔날레, 서울대미술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이 공동 주최하는 '아트 위드 아시아, 인 코리아(Art With Asia, In Korea) - 한·중·일 국제 학술 심포지엄'은 지난 12일 시작돼 14일까지 3일간 서울대미술관 오디토리엄에서 펼쳐진다. 이번 심포지엄은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물론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기획자, 참여작가가 함께 해 한·중·일 3개국의 동시대 미술을 논의하고 새로운 담론 형성 장으로서의 아시아를 조망한다. 심포지엄은 '새로운 글로벌 담론과 생성'이라는 주제 아래 '작가, 전시, 비평', '이론적 점검', '한중일 협력과 공진'으로 나누어 주제별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상갑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12일 서울대미술관에서 심상용 서울대미술관장과 '광주비엔날레 문화예술 교류 네트워크 확장 및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작가, 전시, 비평'이라는 주제로 12일 열린 심포지엄

에서 히로키 야마모토 교수(일본 잇센에대)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일본 파빌리온을 사례로 탈재국의 예술에 대해 언급했다. 박소현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미술 지형학적 관점에서의 아시아를 고찰했으며, 변종필 미술평론가는 한·일 미술 교류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이론적 점검'이라는 주제로 1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최석원 교수(서울대)는 동시대 한·중 미술에 대한 바탕에 대해 들려주고, 이보연 교수(성신여대)는 한·중 미술 교류의 현주소와 제언을 제시한다. 이희정 교수(국민대)는 세계화 속 디지털 수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협력과 공진'이라는 주제로 14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심상용 관장(서울대학교미술관)은 '땅'과 '공동체'를, 당연(정화대 예술박물관)은 '디지털 아트'와 '크로스미디어'를, 우즈미 아키코 교수(규슈산업대)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일본 파빌리온 출품작'을 키워드로 동시대 미술 협력을 그려본다.

이상갑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번 서울대학교 미술관과의 상호 협력으로 광주비엔날레가 문화·예술 측면에서의 국제교류 및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양 기관의 다양한 교류 사업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에서 국내 쌀 수출 활성화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 농협 전남본부, 쌀 수출 활성화 실무자협의회

### 실적 분석·추진 전략·물량 확대 논의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 4층 회의실에서 국내 쌀 수출 활성화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도 국제협력관, NH농협무역 등 수출 관계자 및 각 지역농협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쌀 수출 실적 분석 △2025년 목표 및 추진 전략 △수출 물량 확대 방안 △상품 질 개선 및 마케팅 전략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올해도 쌀 수출을 지속 성장시키기 위해 해

외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현지 맞춤형 전략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전남본부는 앞으로도 수출 대상국 다변화 및 현지 유통망 강화에 힘쓰며,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강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국내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쌀 수출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도 해외 시장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남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광주축산농협, '조합사업 보답대회' 개최

광주축산농협은 12일 광주축협 종합타운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사업 운영의 공개(보답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2024년도 결산 보고와 조합원 출자배당 및 농협경영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한 조합원 의견을 적극 수렴해 농·축업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질의응답을 통해 조합원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광주축협은 그동안 조합원 소득증대와 편의증진을 위해 의료복지 기프트카드, 영농자재 교환권 지급, 조합원 자녀 학업증진금 전달, 헬퍼사업 혈통등록 사업, 육질관측, 임신감정, 축사방역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쳤다.

김호상 광주축협 조합장은 "생산자의 땅과 소비



자의 신뢰를 소중히 여기며, 축산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도시형 축업으로서 도시와 농촌을 잇는 도농 교류 창구가 되어 농촌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동구,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광주시 동구는 12일 계림초교 정문에서 동구청 직원, 동부녹색 어머니회, 동부경찰서, 동부도보안전지원회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

## 광주시 "안전한 초등학교 등하굣길 만들어요"

### 자치구·교육청·경찰청·민간단체와 안전캠페인

광주시는 5개 자치구, 시교육청, 경찰청, 민간단체 등과 함께 12일 초등학교 20곳에서 봄 개학기 '어린이 안전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이정선 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초등학교생들의 등교 시간에 맞춰 손팻게와 현수막을 이용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건강한 먹거리 제공하기, 학교 주변 위해요소 안전신문고 신고하기 등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대중교통·자전거 이용과 보행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공유했다.

고광안 행정부시장은 "최근 어린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주의깊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교와 어린이, 학부모 당사자 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어린이 안전에



관심을 갖고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가 생활 속 안전 위협 요소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신문고'가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이다. 13세 미만인 초등학교생 이하 어린이가 안전신문고에 접속하면 어린이용 신고화면으로 자동 전환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면으로 구성돼 있다. 양동민 기자

## 나주중부노인복지관, 사회복지 시설평가 A등급 달성

### 시설 관리·프로그램 등 우수

나주시 중부노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평가는 전국 노인복지관 240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시설 및 환경, 재정과 조직 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 권리 등 총 5개 영역을 살폈다.

중부노인복지관은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시설 관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등 운영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전남도 내 지자체 직영 복지시설 중 유일하게 2회 연속 A등급을 달성하면서 더욱 값진 성과로 꼽힌다.

중부노인복지관은 지난 2014년 5월 개관해 2017년부터 시 직영으로 전환했으며 5000여명이 회원으



로 등록돼 운영 중이다. 올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해 각 프로그램별 자동 출력 및 경로식당 무인키오스크 구축 등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과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서구, 청년·일자리 복지 사업 지원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12일 서구청 나눔홀에서 열린 '제1차 청년정책추진위원회'에서 위촉장을 수여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